

AN, 아시아가격 950달러 돌파!

수급 안정적으로 상승세 지속 전망 ... 플랜트 문제는 아직 난항

아시아 AN(Acrylonitrile)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한때 톤당 880달러까지 떨어졌으나 2003년 2월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3월초에는 930달러 대에 달했다. 3월 후반 들어 950달러대 계약도 성사되는 등 3월은 비슷한 수준에서 가격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 발생한 각국의 플랜트 고장문제가 아직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대형 플랜트의 정기보수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중국수요 증가 등으로 수요가 늘고 있고, 프로필렌(Propylene) 가격이 폭등해 공급량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아시아에서의 AN 시장은 한동안 상승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AN 아시아 가격은 2002년 12월 톤당 930달러 전후에서 움직였으나 2003년 1월에는 미국 Sterling이나 동서 석유화학의 플랜트 가동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해 성사된 계약은 없으나, 800달러 초반대의 저가오퍼도 있었다.

그러나 수급은 비교적 타이트하게 유지됐고, 수요처의 저가 기대심리와는 반대로 2월 들어 900달러 대를 회복했으며, 2003년 3월 초에는 약 930달러를 기록했다.

앞으로 아시아 AN 시장은 중국수요 증가가 공급량 증가를 웃돌아 수급이 타이트하게 추이하면서 고가행진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미국 Sterling의 36만톤 플랜트 중 2계열 24만톤이 4월 재가동될 예정이었으나, 프로필렌 가격이 급등해 2003년 말로 재가동이 미루어진 상태이다.

다만, 동서석유화학의 24만톤 플랜트가 2월말 상업운전을 시작했고, 중국 Sinopec Shanghai Petrochemical의 3만5000톤 증설설비도 2003년 중반 가동할 예정이어서 약간은 숨통이 트이고 있다.

그러나 이태리 EniChem의 12만톤 플랜트는 2002년 6월 이후 가동이 중단됐고, 멕시코 국영석유기업 Pemex의 18만톤 플랜트도 3개 라인 중 2개가 계속 정지돼 있다.

더욱이 EniChem의 아세미니 소재 10만톤 플랜트가 2003년 중반부터 가동을 중지할 예정이기 때문에 2003년 공급량 증가분은 26만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정기보수도 확대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Solutia의 2계열 51만톤이 5월과 9월, DuPont의 18만5000톤이 7월, BP의 46만톤이 9월에 정기보수에 들어간다. 또 스페인 Repsol의 12만5000톤, 타이완 FPC의 20만톤이 11월 정기보수를 실시함에 따라 공급 감소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중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다만, 중국의 아크릴섬유 설비 증설계획은 2002년 일단락됐기 때문에 세계 AN 수요증가율은 2002년 4%에서 2003년에는 2%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Chemical Journal 2003/04/16>